

공동관심사 나눔

1. 오늘 일정 안내

- **비대면 예배 안내** :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장학생 선발** : 총 4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청신 2명, 교육전도사 1명, 성돌향린 교우 1명)
- **돌곶농산물 판매** : 백미, 보리쌀 주문받습니다. 9월에 도정 예정이니 미리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이옥희 권사 010-4872-4821)

2. 교우 소식

- **소 천** : 김광열 장로의 부친 故 김성기 님께서 지난 8월 28일(토)에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 **유 학** : 김채린 교우(김진호/이혜원 집사의 딸), 8월 28일(토), 미국 위스콘신
- **휴 가** : 이민하 전도사, 8월 28일(토)~29일(일)

3. 이번 주 일정 안내 : 8월 30일(월)~9월 5일(일)

-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진보신학팀** : 집필자 모임, 8월 31일(화) 오전 11시, 내자동 사무실
- **수요영성기도회** : 9월 1일(수), 저녁 8시, 온라인(ZOOM)
- **창조절기 시작** : 9월 5일(일)
- **부서/신도회 월례회** : 9월 5일(일)
-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생태문화팀** : 9월 5일(일), 저녁 8시 30분, 온라인(ZOOM)
- **청년 인문학 공부 모임 "인문공화국"**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온라인(ZOOM), 창애헤의 도전」(김도현), 문의 : 유 건 교우(010-5154-9202)
- **선교부 신학공부 모임** :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ZOOM), 총려와 철학자」(장 프랑수아 르벨)
- **이번 주 성서일과** : 잠언 22:1~2, 8~9, 22~23, 야고보서 2:1~10, 14~17, 마가복음 7:24~37

3. 이후 일정 안내

- **9월 정기당회** : 9월 12일(일), 오후 2시, 온라인(ZOOM)

4. 에큐메니칼 소식

- **한국교회 탄소중립 실천 콘텐츠 공모전** : 9월 4일(토)까지, 탄소중립을 바라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개인 혹은 팀별 참가 가능, 공모 부분 : 영상, 표어, 기도문, 노래(세부사항 홈페이지 참고)
- **녹색교회 아카데미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 9월 5일(일) 오후 3시, 온라인(ZOOM), 1부 : 이진형 목사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캠페인 설명 및 활용 제안", 2부 : 사례발표 "우리교회가 걷는 생명의 길"(서울제일교회, 쌍샘자연교회), 주관 : 서울권역 녹색교회 네트워크

5. 감사헌금

김기수(가족건강), 이옥희/오낙영(감사), 정미숙(건축헌금), 홍정택/유혜진(감사)

온라인헌금안내 : KEB 하나은행 024-22-02085-6 향린교회(입금 시 이름/목적 명기)

<광야생활 안내>

- **예배 장소 및 생활**

- 1)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 2) 비대면 예배(녹화) 장소 : 내자동 교회사무실 (서울YWCA에서는 모임이 없습니다.)
- 3) 모이지 못하는 동안 전화로 서로 안부와 소식을 전하는 교제에 힘쓰시다.

<건축 관련 기도>

- "새로운 선교사명을 감당할 건축설계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 "건축위원들이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마음의 성전을 튼튼히 짓도록"

<향린교인 생활실천 다짐>

2. 우리는 교인들 한 명 한 명의 주체적 참여가 교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각 신도회와 부서, 평화나눔공동체 등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목 / 회 / 마 / 당

성명서 : "아프가니스탄 난민(특별기여자)의 입국을 환영합니다."

"너희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들을 괴롭히지 말라. 너에게 몸 붙여 사는 외국인들을 네 나라 사랑처럼 대접하고 네 몸처럼 아껴라. 너희도 애집트 나라에 몸 붙이고 살지 않았느냐? 나 야훼가 너희 하나님이다." (레위기 19장 33-4절)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함께 했던 현지인과 가족 391명이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입국했다.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에 따른 치밀한 계획과 기발한 발상으로 전원 구출에 성공한 정부와 관계자들의 노력을 칭찬하며, 입국한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나라의 품격을 높인 진천군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굳이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일은 우리나라가 외교적 역량을 갖춘 품격 있는 인권 선진국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앞으로 국제사회를 향해 더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인종, 종교, 문화의 차이를 넘어 난민들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태도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지닌 평화와 인권 의식의 증진을 가져오므로, 보다 상호의존적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난민을 위한 행동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

3년 전, 우리 사회는 불과 500여 명의 예멘 난민에 대한 심각한 견해 차이로 인해 혼란을 겪었다. 그 후로도 난민에 관한 국가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진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1%에 불과하다. 어렵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도 제대로 된 정착금은 주어지지 않는다. 난민 재정착제도를 통해 입국한 난민에게 주택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 역시 보증금이 2년 뒤 국고로 회수된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들의 현실은 더 열악하다. 당장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사업장에서 인도적 체류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하고, 채용이 되어도 짧은 체류허가 기간으로 고용불안이 크다. 적정 노동시간이나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대로 이번에 "우리나라는 친구를 잊지 않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도의적 책무를 이행"함으로써, "어려움 속에서도 미망한 책무를 완수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갖춘 나라"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난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자기 땅을 떠난 아들로, 정부 기관과 시민사회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제 선진국의 격에 맞는 난민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품격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난민은 우리의 이웃이며, 교회는 성서의 가르침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전통을 따라 박해를 피해 온 나그네를 환대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교회와 사회는 우리 안에 그려진 경계를 풀고 약자의 아픔에 동참하며 이들과 함께 상생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와 더불어 강도 만만 형편에 처한 난민들의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아프간 난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전쟁 없는 세상, 난민이 생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평화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2021년 8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